10.15686/fkl.2024..63.438
OPEN ACCESS

행복의 책임과 느낌의 공동체

-알바 갓비, 전경훈 역, 『친밀한 착취: 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

유가은
중앙대학교

팔이 다섯 개인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 엄마의 숨도 세 개가 되었다가 네 개가 되고.
나는 다리가 세 개인 침대 한쪽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병실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머리맡 탁자에는 뚜껑을 열면 튀어나오는 빨대가 달린 컵 하나. 이 환자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문병객의 손자는 또 젖을 먹고, 손자의 엄마는 젖을 위해 우유를 먹고. 세상에 물을 마시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까?

-김혜순, 「민들레의 흰 머리칼」 부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스스로 길어온다고 말할 수도 있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어떤 물질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바 갓비는 행복의 책임을 거론한다. 좋은 삶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해 온 여성들에게 주어진 책무였다. 알바 갓비의 책『친밀한 착취: 돌봄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생산 노동이라는 형태로 행복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명확히 드러낸다.

사랑과 행복, 고통은 한 몸이 되어 엄습한다. 김혜순의 「민들레의 흰 머리칼」에는 6인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엄마를 돌보는 딸인 화자가 등장한다. '나'는 "다리가 세 개인 침대 한쪽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이 구절은 돌봄노동-재생산 노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다리가 세 개인 침대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다리를 떠받치는 사람이 한 시라도 자리를 비운다면 침대는 균형을 잃는다. 일의 시작과 쉼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한순간이라도 노동자가 쉼을 가지면 일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돌봄노동이 여타 노동과 다른 결정적 특성이다.

'하나님'을 찾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서는 병실 도처에서 여러 형태로 돌봄이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의 순간에도 '엄마'는 손자를 위해 우유를 먹이고, 간호사는 "팔이 다섯 개"가 된 듯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세상에 물을 마시지 않는 생물”이 없는 것처럼, 어떤 생물도 돌봄의 필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형철은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가 만나며 느낌을 공유하는 문학의 능력을 설명한다.[1] 아무래도 사랑이 ‘능력’인 것은 옳은 듯하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사랑에 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사랑에 능하지 못해 어눌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실 사랑은 좋은 느낌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좋은 느낌과 고통스러운 느낌, 착취와 증여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지진계가 사랑이라면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는 좋은 느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느낌의 공동체이기도 할 것이다. 느낌은 집단화된다. 갓비는 사유화된 느낌-감정을 공동체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재생산 노동의 문제와 마주해 나가고자 한다.

재생산 노동의 의미와 특수성

감정노동, 돌봄노동으로 잘 알려진 종류의 노동을 이 책은 “감정 재생산(Emotional reproduction)”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서술한다. 감정 재생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서 욕구(Emotional needs)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일상에서 정서적 건강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하며 그것을 지탱하는 노동이 있다는 것이다. 재생산 노동은 노동 유형이자 노동이 생기는 장소와 방식의 틀을 형성하는 사회관계와 이데올로기의 체계이다.

일찍이 혹실드[2]가 감정이 상품으로서 노동 시장에 들어와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사회를 짚어낸 이래,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의 젠더화는 점차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노동의 층위는 너무나도 쉽게 숨어버리고 감정과 젠더의 측면만이 문제인 것처럼 논의되곤 한다. 감정노동에 ‘감정’과 ‘노동’의 측면이 있고 돌봄노동에 ‘돌봄’과 ‘노동’의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1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347-348쪽.

2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진, 2009, 33-40쪽.

는 노동과 감정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한 듯하면서도 모순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한 측면만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친밀한 착취: 돌봄노동』은 감정노동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재생산 이론, 가사노동임금 운동의 틀을 빌려 논의한다. 재생산이라는 틀 안에서 감정노동을 정치화하며, 감정노동에서 '정서'의 측면을 집단적인 것으로 재인식하기를 촉구한다. 마르크시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일찍부터 분업이라는 체제에 주목해 왔다. 갓비는 젠더 분업 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가족-재생산을 사적인 영역에 내버려두고, 재생산을 오롯이 가족의 책임으로 미뤄두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갓비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남성적이고 근대적인 가치를 '느낌'이라는 단위를 통해 서술하려 한다. 감정은 그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이며 계량 불가능한, 그래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이 책은 감정, 욕구, 욕망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며 감정을 기술적 노동의 유형으로 본다.

감정을 자본주의의 중추적 요소로 이해하면서도 감정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사물화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재생산 노동은 '노동'이면서 동시에 '비노동'이다. 재생산 혁명은 이 테제를 명확히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감정노동을 자본주의적인 재생산의 틀에서가 아닌, 주변화된 사람들의 행위와 욕구에 기초한 재생산의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페미니즘의 목적은 모든 대상을 교환 가능한 재화-노동으로 환산하는 경향 자체에 질문하는 일이다. 재생산 노동의 양가적 측면을 모두 조명하면서 감정 재생산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유화된 감정을 집단화하기

느낌은 언제나 혼자만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느낌'을 비이성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은 느낌을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한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이 영역이 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핵심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대립항처럼 보이는 감정이 실은 자본주의 안에 있음을 거듭 설명한다. 모성이나 사랑 등으로 불리는 감정은 사실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자본과

유상노동의 단위를 설정하는 기제가 된다.

근대적 임금노동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집안을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무임금 재생산 노동자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생산 노동의 상당 부분이 무임금으로 남아야만 한다. 자본주의적 구조는 '쉼터'로서의 가족, '공과 사의 구분', 가족의 '신성성' 등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재생산되지만 그것은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과 상호의존적이다.

자본은 재생산 노동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부정한다. 마르크시즘이 사유재산의 모순을 밝혀내며 사유화된 것을 집단화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 책은 감정이 자본을 지탱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유화된 감정을 집단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모성과 사랑, 돌봄은 가족이 독점해 왔다. 갓비는 양육자 '엄마'의 독점적 지위를 지적한다. 모성은 본성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정서적 경험이며, '엄마'의 양육자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하고 유일해지면 할수록 모성은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독점은 양육자의 노동 강도와 감정의 소모량을 높인다.

재생산 노동자는 대상의 감정을 위해 항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억압할수록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서의 찬사가 부여된다. 억압과 그 억압에 대한 보상이 주변적 집단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 역시 자본주의의 병폐와 닮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산 노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앞서 김혜순의 시를 살펴보면서 돌봄노동이 "다리가 세 개인 침대 한쪽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재생산 노동은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그 말은 노동자가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것을 효율화하거나 계량화해서 가격을 붙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단위로 보면 자본주의적 특성은 더 명확하게 보인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전세계적으로 여성 이주자의 고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3] 선진

3 Shawn Meghan Burn, *Women Across Cultures: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2011, p.162.

국의 여성이 임금노동 시장에 진출해서 일을 할 때, 이주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서 생산된 재화를 본국으로 보내는 방식의 연쇄가 작동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재생산은 관계와 의존에 얽힌 체계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이런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 재생산 노동은 상대적으로 저숙련으로 취급받아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 제도 하의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는 잉여 인구의 재생산을 통제하고 복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재생산 노동을 사적 영역에 귀속시킨다. 신자유주의 복지 제도는 무임금노동에 기초한 생활 형태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데 기여한다. 우리 사회는 부유한 사람은 그가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 믿고, 가난한 사람은 그의 맥락과 관계없이 불성실하고 사회의 혜택을 받는 무용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가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성애는 무임금 노동을 자연화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재생산이 여성에게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남는다면, 여성이 시간제 노동에 종사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 책에서 갓비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가 역설적으로 전통적 가족 형태에 더 의존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돌봄의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같다고 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들에게 더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감정의 측면에서는 이중의 부담과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부과했다. 감정 재생산은 여전히 자본 안에 있다.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재생산의 딜레마는 커지고, 재생산노동의 참여율을 줄이는 여성은 가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적인 여성이 된다. 한국 사회는 가사노동에 참여율을 줄이는 여성을 악마화하고,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기혼 남성의 남성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간극을 더 크게 만든다. 갓비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과 충돌하는 욕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남성들에게 재생산 노동을 하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딱 그정도로만 나아갈 것"[4]이

4 알바 갓비, 전경훈 역, 『친밀한 착취: 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 238쪽.

라고 말한다. 임금노동이 일정한 수준의 재생산 노동을 개인에게 요하는 구조 아래에서 완벽한 여성은 영원히 달성되지 못할, 실패할 목표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평등이라는 가치가 재생산 노동이 구조의 착취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이 책은 재생산 노동의 투쟁이 반자본주의 투쟁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노동자계급에서 가장 심하게 착취당하는 이들의 욕구와 요구에 기초해 투쟁하는 것은 통합된 노동자계급을 만드는 필수 요건이다. 여성화된 노동과 그것이 수반하는 노동관계를 폐지하는 것, 가족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이다.

'가족의 폐지'와 친밀성의 정치

가족은 어째서 정서적 안정을 주기보다는 트라우마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일까. 미디어의 가족 콘텐츠는 근원적인 트라우마의 생산지로서 가족을 재현한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의 문제는 양육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는 서사는 쉽게 공감을 얻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육자가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아이에게 반복하지 않으려 결심하는 것 정도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은 사회성의 지배적 형태이다. 지금의 재생산 구조가 재생산되는 한 가족은 또다시 고통을 '재생산'할 것이다.

무임금 재생산에 투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중지했을 때 돌봄의 대상에게 해만 되고 정작 자본이나 국가에 아무런 가시성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가족이라는 노동관계는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책은 가정 폭력과 그 안의 성폭력을 노동 재해로까지 부르면서 여성의 노동을 통제하려는 욕구의 결과로 이해한다. 동성애 관계에서조차 더 여성적인 파트너가 존재하며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좋은 삶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여성에게 부과된다. 재생산 노동으로 여성화된 몸은 실은 노동의 결과인데도 자연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원하는 수준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은 좋은 삶과 행복 자체를 거부하는 여성이 되는 상황에 응전해야만 한다.

앞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에 종사하면서 재생산 노동의 현재 구조를 형성하

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이 책은 개인주의가 실은 매우 가족주의적인 기반에서 성립함을 보여준다. 개인이 자기 인격과 역량의 온전한 소유주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특징이라고 했을 때, 젠더가 내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다양한 종류의 특성 역시 내부에서 길어 올려진다고 이해하면서 자연화하고자 하는 것은 가부장제적인 특징이다. 자본주의적인 체제와 가부장제적인 체제는 동행하면서 재생산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 책은 재생산 노동이 현재 지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폐지와 재생산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족이 계속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이 자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자연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대안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갓비는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돌아볼 것을 요청한다. '핵가족'은 애초부터 형성된 개념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전혀 자연적이지 않았다. 지금 핵가족마저도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가족 자체가 불안정한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가족의 폐지란 개인의 단위에서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재생산의 특권적 형태들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산 혁명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의 탈젠더화, 감정 재생산의 퀴어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성애 재생산은 자녀를 위해 좋은 삶을 만드는 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와 정확히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자녀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 부모자식 관계를 지금처럼 억압적으로 구성하는 기제가 된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기 쉽다. 이 역시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계급관계를 감정적으로 재생산하는 아동 돌봄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정 재생산의 퀴어화는 일탈적 재생산 실천이 제도화된 양식을 해소하는 데에 동원될 수 있다. 이성애 제도 속에서 우리는 잘 상상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퀴어 친족, 퀴어 노인 돌봄이 실천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은 감정의 실천 구도를 바꾸는 방식의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저항과 대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실천하는 형태 자체를 집단적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운동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를 제공한다. 재생

산 노동의 문제가 자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면, 가사노동임금의 문제 등은 노동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노동운동의 힘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갓비는 노동운동의 구도에서 여성 자치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감정은 사랑과 좋은 기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문학의 층위에서 '느낌의 공동체'라는 말을 빌려왔었다. 이것을 재생산 투쟁의 틀에서 해석하면 '느낌'은 혼자만의 것으로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집단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느낌'이란 좋은 느낌, 사랑의 느낌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감정의 사유화는 돌봄의 개인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랑이 커플과 가족의 친밀성 영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감정은 사유재산의 영역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친밀성과 사랑은 커플과 가족만의 것이 아니다. 어떤 단위에서도 친밀성과 사랑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갓비는 분노라는 감정의 역량을 강조한다. 폭넓고 다양한 감정의 집단적 실천이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친밀성의 정치는 로맨스를 개인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의 집단적 역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퀴어성은 친밀성을 정치화하며 정치적 주체성을 생산한다.

이 책은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의 측면을 재생산 노동이라는 범주에서 설명하는 텍스트이자 돌봄노동 논의에서 변화해야 할 패러다임을 정확히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을 기본 단위로 보는 인식틀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방식의 재생산 실천이 보이게 된다. 일탈적 재생산 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실천 방식을 유의미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